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9.23(금) ~ 2022.9.29(목)

제공일시 2022 10 07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산업통상자원부 kpc 한국생산성본부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9.23(금) ~ 2022.9.29(목)

제공일시 2022 10 0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수소 프로젝트에 52억 유로 지원

(글로벌이코노미, 2022.09.28) 김진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연합(EU) 12개국이 참여하는 수소 인프라 구축과 산업 공정의 통합을 위해, 52억 유로(약 7조17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승인했음
- 'IPCEI Hy2Use' 프로젝트는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슬로바키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도 포함. 회원국들은 최대 52억 유로의 공적 자금을 제공해서 70억 유로(약 9조6549억원)의 민간 투자를 추가로 개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이니셔티브에는 1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29개 기업과 EU 전역의 대학, 연구기관 등 160여개 외부 파트너가 35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함

2. 미국,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증가 위한 로드맵

(Reuters, 2022.09.23) David Shepardson 기자

(미 정부의 로드맵 문서)

- 미 에너지부가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생산과 사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음
-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최소 30억 갤런의 SAF를 공급하고 2050년가지 연간 350억갤런 정도로 예상되는 항공연료수요의 100%를 충족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이 계획은 미국 기업들이 신흥 산업시장을 독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업적으로 준비된 변환기술과 원재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지방질기반 경로(동물성 지방, 식물성지방 등)는 2030년까지 1차 연료 경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바이든은 지난 8월 2년간의 혼합연료 세액 공제, 이후 3년간의 생산세 공제 및 2억9000만 달러의 SAF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음

3. EU도 미국도 급한 이것 '배터리 재활용'

(이데일리, 2022.09.24) 함정선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등 전기차에 대한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며, 세계 주요국이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임
- 니켈과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광물의 경우 수요가 늘며 가격이 치솟고 있고, 코발트와 흑연 등 일부 광물은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재활용을 통해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함
- 이를 위해 EU는 '새로운 배터리 규제'를 통해 재활용과 재사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2026년 배터리 여권 제도와 203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 '재활용 원료 의무사용 비율'을 시행할 예정임
- 미국은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에 2050만달러를 투자해왔으며 올해는 6000만달러를 추가 투입함

1. 호주 석탄 생산 1위 퀸즐랜드, 재생에너지 허브 추진… 58조 투자

(연합뉴스, 2022.09.29) 박의래 기자

- 뉴사우스웨일스(NSW)주와 더불어 호주 최대 석탄 생산지인 퀸즐랜드주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620억 호주달러(약 57조7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했음
- 29일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아나스타샤 팔라세이 퀸즐랜드주 총리는 2032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의 70%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청정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했음
- 당초 목표치는 50%였지만, 이를 20%포인트 끌어올렸음 또, 2035년까지 80%로 늘리기로 하여 총 620억 호주달러(약 57조7천억원)를 투자해, 파이어니어 밸리에 대규모 양수 발전소를 건설함
- 또, 주 전역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짓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배터리 저장 시설과 수소 생산 시설 등도 도입하고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 8개는 2040년까지 유지하며, 예비 전력 생산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음

2. 북미 반도체·전기차 기업들, 韓에 1조6천억원 투자 보따리 푼다

(연합뉴스, 2022.09.23) 권희원 기자
(머니투데이, 2022.09.25) 조규희 기자

- 정부가 북미 지역 기업들로부터 11억5천만달러(1조6천181억원) 규모의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분야 투자 유치에 성공했음
-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가 반도체 장비 R&D 센터를 한국에 신설하기로 했고 미국 듀폰(Dupont)은 차세대 극자외선(EUV)용 감광제와 화학기계 연마 패드, 패키징 등 반도체 소재 R&D 센터와 생산시설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밝힘
-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 자동차 부품기업 '보그워너(BorgWarner)'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 R&D 센터를 증설하기로 했음
-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노스랜드파워(Northland Power)'는 남해에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함

3. GS건설, 獨 바스프와 '탄소포집장치 표준 모듈화' 사업 나서고,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머니투데이, 2022.09.27) 방윤영 기자
(한국경제, 2022.09.27) 김채연, 차준호 기자

- GS건설은 2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바스프와 '탄소포집장치 표준 모듈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 GS건설은 오아세 블루는 액체 흡수제를 이용해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이느바스프의 핵심 탄소포집기술 '오아세 블루'를 표준화된 모듈로 공동 개발함
- 한편, 롯데케미칼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업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함
- 이는 전기차 소재 분야 진출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단행하는 대규모 인수합병(M&A)으로 현재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는 13% 점유율로 4위, 국내에서는 SK넥실리스(글로벌 점유율 22%)에 이어 2위임

1. 삼성 RE100 되려면 'MRV' 필수… 고도화방안 모레 발표

(뉴스1, 2022.09.28)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점점 강해지는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검증 체계(MRV)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28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탄소배출 MRV 기반 강화방안' 안건을 상정함
- MRV란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측정(Measuring)하고, 보고(Reporting)하고, 검증(Verification)하는 것으로 최근 삼성의 선언으로 주목받은 RE100이 되려면 MRV가 전제돼야 함
-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국내 기업들이 RE100, ESG 경영 등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MRV 연구·인력 지원 등의 고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음

2. 배터리 핵심 원자재 '리튬' 중국 의존 64%… "공급선 다변화해야"

(한겨레, 2022.09.29) 김영배 기자
(아시아경제, 2022.09.29) 문채석 기자

-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로 꼽히는 리튬 조달을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국내 배터리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9일 내놓은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한국의 리튬 수입액은 24억7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56.1% 증가했음
- 올해 1~7월 전체 리튬 수입액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게 16억1500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64%로 배터리 경쟁국 일본의 대중국 리튬 의존도는 한국보다 낮은 50%대(56%)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무협은 "중국의 기후변화나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이 불거질 경우, 국내 리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내다 봤음

3. 거래소 "'ESG·고배당 지수' 다음 달 내놓는다"

(연합뉴스, 2022.09.23) 이미령 기자
(연합인포맥스, 2022.09.23)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는 23일, 여의도에서 '2022 KRX 인덱스 콘퍼런스'를 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배당 지수가 다음 달 4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음
- 이날 공개된 ESG 고배당 지수는 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 중 ESG 평가와 배당수익률이 우수한 50개 종목을 선정해 산출하는 지수임
- 거래소는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 수요가 늘었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라며 지수 개발 배경을 설명했음
- 거래소는 또, 다음 달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전략산업 테마 지수, ESG 지수, 채권지수 등을 개발할 계획임

1. 수소 생태계 조성 잰걸음… 발전소 탄소 배출 '0' 시대 올까

(디지털타임스, 2022.09.26) 정석준 기자

-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는 평택항에 석탄-암모니아 혼소 및 가스터빈 무탄소 혼소 시험센터와 수소·암모니아 인수기지를 구축함
-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는 무탄소 청정연료인 수소 자급률을 2030년 34%까지 늘리며, 2050년에는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음
- 무탄소 발전원 중 가장 주목받는 에너지는 수소임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최초로, 폐지발전소 가스터빈을 활용한 수소 50% 이상 혼소 발전 설비를 평택에서 실증 중이며, 2030년부터 평택발전본부에 수소 전소 발전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임
- 한국가스공사는 액화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해 해외 생산부터 수송, 저장 시설과 공급 기술을 확보할 계획임

2.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고작 0.02%… 기업, RE100 하고 싶어도 힘든 현실

(헤럴드경제, 2022.09.26) 주소현 기자

- 실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삼성전자는 5년 내 해외 전 사업장에서 먼저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하기로 하고 이후 국내에도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지금과 같은 공급 수준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김태한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더라도 '추가성' 요건이 강화되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음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국내 RE100 기업이 현재 23개인데, 내년이면 30개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3. 가축분뇨로 탄소 소재 만들고 에너지 생산… 관련법 정비 전담조직 구성

(이투데이, 2022.09.27) 이해곤 기자

-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탄소 소재 개발, 에너지 생산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음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 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음
-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환경오염과 악취관리 부문 규제는 유지하거나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
-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국가 가축분뇨 종합 관리계획'을 법정화할 예정임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9.23(금) ~ 2022.9.29(목)

제공일시 2022 10 0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항공산업,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로드맵 환영… SAF 솔루션 선보여

(임팩트온, 2022.09.26) 유미지 기자

(임팩트온, 2022.09.29) 홍명표 기자

-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에너지부는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의 생산 및 사용을 늘리기 위한 'SAF 그랜드 챌린지 로드맵'을 발표함. 2021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최소 30억 갤런의 SAF를 공급하고 2050년까지 충분한 SAF를 확보할 것을 목표로 제시함. 미국 항공사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30억 갤런의 SAF를 항공기 운영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이번에 행정부가 발표한 SAF 그랜드 챌린지 로드맵의 목표는 두 가지로 보임. 기존 연료와 비교해 수명 주기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최소 50% 감축하는 것과 2050년까지 항공 연료의 수요를 100%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SAF를 공급하는 것임
- SAF 로드맵에는 SAF의 공급원료와 변환 기술, 공급망 구축, 정책 및 가치 분석, 최종 사용 활성화, 진행 상황 및 지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는 6가지 실행 영역이 제시되어 있음
- 에너지부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상업적으로 준비된 변환 기술과 원재료에 즉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함. 또한 "폐기름(fats, oils, greases, FOG)과 같은 지방질 기반이 2030년까지 이어지는 주요 연료 경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임
- 산업 무역 협회와 로비 단체인 미 항공운송협회(Airlines for America)는 정부의 SAF 로드맵 발표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힘. 미 항공운송협회의 CEO인 니콜라스 칼리오(Nicholas Calio)는 "SAF 개발은 항공사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미국 항공사는 2030년까지 30억 갤런의 비용 경쟁력 있는 SAF를 항공기 운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로드맵은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움직임을 개략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전함
- 델타 항공(Delta Air Lines)과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을 포함한 많은 항공사는 2030년까지 제트 연료의 10%를 SAF로 교체하기를 원하고 있음. 현재 다양한 기업들이 전기 비행기나 수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비행기 등과 같은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음
- 스위스의 저가항공사 이지젯(easyJet)이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넷제로 전략에 따라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수소항공기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확정했다고 지속가능성 전문미디어 에디(edie)가 27일 보도함
- 이지젯은 로드맵의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2050년에는 승객당, 킬로미터당 사업에서 항공편의 탄소 집약도를 2019년보다 78% 낮출 수 있을 예정임. 올해 말까지 모든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지불을 중단하고, 대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데 주력한다고 밝힘
- 이지젯 항공사의 새로운 계획은 주로 보다 효율적인 항공기와 프로세스의 도입,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이하 SAF)의 채택 및 수소 항공기의 사용에 달려 있다고 분석됨. 항공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크기의 수소 항공기는 아직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지젯은 신속한 개발을 위해 영국 롤스로이스와 제휴함. 또한, 이지젯은 에어버스, GKN 에어로스페이스, 라이트 전기 및 크랜필드 에어로스페이스 솔루션과 수소 항공기에 관해 협력하고 있음
- 이지젯은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항공기에 투자할 계획임. 이 회사는 168대의 에어버스 네오(NEO)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선택했는데, 이 항공기는 교체할 항공기보다 최소 15% 이상 연료 효율이 높음

- 또한, 이지젯은 새 플랜 출시를 기념해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3년 탄소 상쇄 계약이 2022년 말로 종료되면 더 이상 오프셋 비용을 표준으로 지불하지 않겠다고 확인함. 이를 위해 에어버스와 직접공기포집(DAC) 및 기타 탄소 제거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함
-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다른 항공사들과 대조적이라고 FT 는 밝힘. 미국의 델타항공은 지난해 2700만 개의 탄소상쇄 오프셋을 구입하기 위해 1억3700만달러(약 1900억원)를 지출했고, 영국항공은 모든 비행여정을 탄소상쇄하기 때문에 모든 국내 항공편을 '탄소중립'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S&P에 따르면, 항공사들의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넷제로를 할 때 상쇄에 기대고 있음. S&P는 "항공사들은 2025년까지 운항할 때의 온실가스 감축량의 97%를 감축하기 위해 탄소상쇄에 의존할 전망이며, 2050년이면 8%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영국 미디어 가디언은 이 결정이 부분적으로 2021년 5월 항공사가 사용한 산림 상쇄 체계에 공표된 것으로 추정함. 루트(Route)와 협력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 이러한 계획이 항상 추가적인 탄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에 이지젯은 2023년 1월부터 이용 승객들이 자신들의 여행과 관련된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발표함